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①수기품(授記品)

이 수기품은 앞서 제4장에서 마하카사파(摩訶迦葉)를 비롯하여 마우드가리아야나(目犍連)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의 큰 성문들에게 부처님의 수기가 차례차례로 주어진다.

'수기'란 범어로 비야카라나(Vyākaraṇa)라고 하며 '기별(記別)·기설(記說)'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수기(授記)는 주(授)는 쪽에서 말한 것이며, '수기(受記)'는 받는 편에서 말한 것이다. 불전 가운데 설해져 있는 수기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면, (1) 제자 등이 죽은 뒤에 태어날 곳을 밝히는 것 (2)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중

이상의 여섯 가지인데 이는 경론에 따라 다소 들고남이 있다.

이제 이 수기품에 설해진 네 사람의 큰 성문 수기 가운데, 한 가지 예로서 마하카사파의 6사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미래세에서 3백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섬긴다 (2) 부처가 되어 광명여래(光明如來)라 한다 (3) 그 국토의 이름을 광덕(光德)이라 하고 시대(劫)를 대장엄(大莊嚴)이라 한다 (4)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겁(小劫) (5)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20소겁, 상법 또한 20소겁 (6) 국제(國界) 정엄하여 청정하며 유리(瓔珞)를 땅으로 하고 평탄하다.

큰 성문 네 사람의 6사는 저마다 다르지만 정엄된 불국토의

'미래의 성불' 의미로 사용

나라·시대명 등 六事 열거 사례

과(因果)의 예언 약속 (3) 미래에 성불한다는 예언(豫言) 등의 세 가지 뜻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승경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기라는 말은 세 번째의 의미인 '미래에 성불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다. <법화경>도 그러하다.

미래 성불의 수기에는 반드시 성불하는 나라의 이름, 성불하는 시대의 이름, 정법과 상법이 존재하는 기간 등이 열거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을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6사(六事)라고 칭한다.

- (1) 행인(行因)은 미래세에서 여러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모습 (2) 득과(得果)는 최후신(最後身)에서 성불한 부처님의 이름(佛名) (3) 겁국(劫國)은 성불하는 곳의 나라와 시대(劫)의 이름 (4) 불수(佛壽)는 성불한 부처님의 수명 (5) 정상(正像)은 정법과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6) 국정(國淨)은 성불한 나라의 정엄된 청정한 모양 등이다.

모습에는 공통된 표현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법화경>에서는 제1장 '수기'가 개설되어 4대 성문들의 수기 양상이 자세히 설해져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 <법화경>의 수기는 미래 성불의 약속 또는 증명이다. <법화경>의 제2장 방편품에서 '지금까지는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는 성문 등 2승에 대한 성불의 예언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진실한 가르침은 단 한 가지의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며, 2승·3승이라는 가르침은 방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아들(佛子)이어서 2승도 기필코 장래에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 즉 2승 작불(作佛)이 설해진 것이다. 따라서 2승에 대해 부처님께서 성불의 예언을 주신다는 수기는 2승 작불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설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설정사 조실



그림·문병성

萬有엔 유기·인과적 법성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⑧

상의적 수수관계와 연기법

세존께서 설하신 연기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것이 있으면(있으면) 곧 저것이 있고(있고), 이것이 생기면(생기면) 곧 저것이 생긴다(생긴다)'는 것이다. 전자는 상대적 존재 원리로 서로 만나는 연결적 조우 조건을 뜻하며, 후자는 조우를 통한 상의적 수수관계에서 상호간의 반응, 적응 등으로 자기 초월체를 이루어 감을 뜻한다. 그래서 연기법의 원리는 분별적 사유를 지나는 단순한 연속체가 아니라, 만유의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적인 수수관계의 원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상의적 관계가 일어나는 자연계는 곧 연기법계로서 우주적인 인과과정의 세계이고, 또한 만유는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인 상의적 관계에서 인과적 작용을 속성으로 하는 법성을 지니고 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응관계이고, 상의적 수수관계는 연속적인 초기 반응으로 원인 제공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수관계는 만유의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연결관계에서 그 존재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그러면 우주에서 지구라는 존재가 다른 천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첫째 지구는 초속 470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 지구는 왜 돌아야만 할까?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려면 가까운 달이나 태양 등의 강한 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군가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한 지구는 인연 따라 돌 수밖에 없다. 들쭉날쭉한 지구가 자전하면서 초속 30km(고속버스 속도의 1080배)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것은 태양이 태어날 때 지구도 원시 태양계 성운에서 함께 태어난 인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의 강한 인력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셋째는 태양이 모든 행성들을 거느리고 헤르츨레스 별자리 쪽으로 초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태양 운동은 태양 주위에 있는 여러 별들이를 국부항성이라 함과 함께 상호간에 인력을 미치면서 중력적으로 모두가 묶여있다. 넷째는 국부항성의 별들은 제각기 움직이고 있지만 국부 항성계라는 집단 천체의 중력

권에 묶여 있으면서, 은하의 중심 주위로 초속 230km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은하계는 30개 이상의 은하들이 모인 국부 은하군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은하들은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중력적으로 묶여 있다. 이 국부 은하군 속에서 우리 은하계는 초속 40km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며,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은하는 16만 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은하로 남반구에서는 육안으로도 이 은하를 볼 수 있다. 여섯째 국부 은하군은 다른 은하단(은하의 집단)들과 함께 모여 더 큰 은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처니자리 초은하단이라 한다. 크기가 3천300만 광년 되는 이 초은하단 내에서 국부 은하군은 초속 6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일곱째 초은하단들이 모여 더 큰 초초은하단을 형성한다. 처니자리 초은하단이 속해있는 처니자리 초초은하단은 미지의 거대한 은하 집단을 향해 초속 7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지구는 단순한 자연, 공전뿐만 아니라 다른 별, 다른 은하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돌고 있다. 이러한 운동이 어찌 우연한 인

연이라 할 수 있었는가? 지구가 태어난 물질의 근원을 거슬러 과거로 올라가면 모두가 탄생의 환경과 과정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초의 우주가 생겨날 때 원시 우주물질이 어떻게 분포했고, 여기서 은하와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알게 되면 우주는 만물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인연의 거물망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는 우주의 인연이란 거대한 그물망의 어느 한쪽에 티끌같이 작게 걸려 있지만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일맞은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인간이 지상에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주론적 인간원리이다.

나라는 자아의 집착, 내가 잘 낫다는 아만,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허망스러운 망념, 이 모든 것은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한 행위요, 마음의 소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나 자신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물의 한쪽을 당기면 다른 쪽에 힘이 미쳐 그를 모양이 변하듯 인연의 열개에서는 남에게 그 영향이 미쳐 나쁜 인연을 심어 줄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내가 그 반작용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인연 관계는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적이며 또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며 순환적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집착·아만 찰나에 불과

남에게 나쁜 영향 끼치면

반드시 반작용 되돌아와



"과식 금하고 육식 절제"

채식 열풍

채식 바람이 거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가 최근 SBS와 EBS 등 방송사들이 신년특집 기획 프로그램에서 채식의 중요성을 집중 보도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채식 식당이나 채식 재료 전문점에 사람들이 몰리고 채식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다.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다. 불교 전문서점에는 사찰음식 관련 책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어떤 식생활을 강조하셨을까. 부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식 금지와 육식 절제'로 요약할 수 있다.

과식을 하면 배설이 더뎠다. 음식의 독성이 체내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육식을 절제시킨 것도 이와 같다. 육류는 체소보다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병을 부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 육식을 먹을 때에는 두 배의 아재와 함께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여러 식생활 가운데 불자들이 귀 기울여 할 것으로는 '반드시 제 칠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 도락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수행과 기도의 연속으로 여기고 이를 실천할 때 육체적 정신적 자양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생들에게 네 가지 병이 있다. 봄에는 가래가 심하고, 여름에는 풍병, 가을에는 황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병은 겨울이면 한꺼번에 난다. 봄에는 땀과 뜨겁고 매운 것을 먹고, 여름에는 미끈미끈하고 뜨겁고 짜고 신 것을 먹으며, 가을에는 차고 달고 미끈미끈한 것을, 겨울에는 시고 땀과 미끈미끈하고 단 것을 먹어야 한다. <금광명최승왕경>

■ 음식이 맛있어도 양을 초과해서 먹어서는 안 되며, 오직 기력을 도와 이름게 하는 데 그쳐야 한다. <아미타경>

■ 먹는 음식이 많은 사람은 몸 모양이 여위어 아하고, 조금 먹는 사람은 몸 모양이 충실하다. <비러문연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석등 Stone lantern, 대웅전 The Main Hall, 절 Bow, 예불 chanting ceremony

Within the temple there are many different objects to see. These include stone lanterns, the main hall other than pagoda, pudo. Stone lanterns are usually found around the Main Hall. The Main Hall usually built in the middle of the temple, so it can separate from other building. Lay people first make a bow in the main hall.

석등은 일반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돼 있다(Usually stone lanterns are made of beautifully decorated). 석등의 윗부분에는 8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등불을 밝힌다(Near the top there is a octagonal shaped square section where the candle was burned). 빛은 4개의 화창(火窓)으로 확산된다(The light is diffused through four openings). 이들 석등은 오전 3시 새벽예불을 올리기 위해 대웅전으로 가는 스님들을 위해 밝혀진다(These lanterns are lit so that the monks and nuns can see their way to the Main Hall for the 3 A.M. chanting ceremony). 대웅전은 '위대한 영웅의 전각'이라고도 한다(The main hall is usually called 'Great Hero Hall'). 여기에는 사찰의 창건원력과 재정에 따라 다양한 분상과 조상들이 조성, 봉안돼 있다(The number of statues therein depends on the wishes and wealth of the temple). 대부분 사찰 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Usually the central figure is Sakyamuni). 대웅전에 들어서면 우선 반배와 삼배를 읊어야 한다.



"장수(長壽) 스님은 비록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이긴 하나 다른 강사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일찍이 남야의 광조 선사를 찾아보고 <수능엄경> 가운데에 부부나 존자가 부처님께,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 냈습니까'고 물은 뜻을 가지고 가르침을 청하였습니다. 남야가 이에 소리를 높여서,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 내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수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아무런 망상이나 조그만 티끌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은 진공(眞空)이라고도 하며, 깨끗한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맑은 하늘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편 의외는 달리, 마음이 모든 티끌 경계를 만들어 낸다고도 하고, 하나하나의 대상 경계가 마음

'서장' 통한 선 공부 ④

손지현(孫知縣)에 대한 답서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아닌 것이 없다고도 하며, 마음은 진공이지만 동시에 묘유(妙有)라고도 하고, 마음을 물으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가리켜서 답하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을 공(空)이라고도 하고 색(色)이라고도 하며, 무(無)라고도 하고 유(有)라고도 하며, 번뇌라고도 하고 보리라고도 하므로, 이치를 따져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정반대인 것을 어떻게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온갖 그럴듯한 설명들이 만들어져 나오니, 그런 것들이 이른바 불교철학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꾸며내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뜻이라는 허구적 편견이며 그 뜻을 표현한 말일 뿐이다. 마치 아무리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잘 그

려진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림은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이고 실재가 아닌 것과 같다.

또는 허구이니 허구만 쫓아서 진실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허구와 진실의 관계는 비유하지만, 빛과 그림자와 같은 관계고, 파도와 물과 같은 관계이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고, 영화 화면과 영사기의 빛과 같은 관계로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불이(不二)의 관계이다. 그 때문에 허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리켜 볼 수만 있다면, 진실은 바로 그곳에 있다. 진실이 허구와 동떨어져 따로 있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앞에 나타나는 하나 하나의 경계는 그 자체로는 허구

들과 같은 관계이며,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고, 영화 화면과 영사기의 빛과 같은 관계로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불이(不二)의 관계이다. 그 때문에 허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리켜 볼 수만 있다면, 진실은 바로 그곳에 있다. 진실이 허구와 동떨어져 따로 있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앞에 나타나는 하나 하나의 경계는 그 자체로는 허구

도 아니요 진실도 아니다. 경계를 마주하여 허구로 보거나 진실로 보는 것은 오직 사람이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혜란 경계를 대하여 허구 아닌 진실을 보는 안목을 말한다. 경계의 진실을 우리는 법(法)이 아니 도(道)니 마음이니 자성(自性)이니 불성(佛性)이니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니 하고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 그러므로 지혜란 예컨대 나무를 보거나 나무라고만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는 것이다. 마

찬가지로, 돌맹이를 보면서 법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법을 보며, 향기를 맡으면서 법을 보고, 손을 씻으면서 법을 보며, 달리기를 하면서 법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 법을 보며, 생각을 하면서 법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경계는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모든 경계는 법으로 통일된다. 말하자면 모든 경계는 법 위에서 건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관해서는 이대로 보고 확인하여 믿을 수 있을 뿐, 그 까닭이나 원인을 물을 수가 없다. 물을 자체가 이미 법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생각을 통하여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지만, 생각 자체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만, 생각 그 자체에 관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마음법이 바로 그렇다. 마음 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헤아려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마음 그 자체는 다만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믿을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렇게... http://www.mindfree.net/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법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탐채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말봉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열병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아랫돌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므로)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엑스를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마병의 근원인 혈액순환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대교 보우구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